

2019년 2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주요 변수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 트럼프 “중국과 합의에 근접하면 데드라인 연기할 수 있다”

미 증시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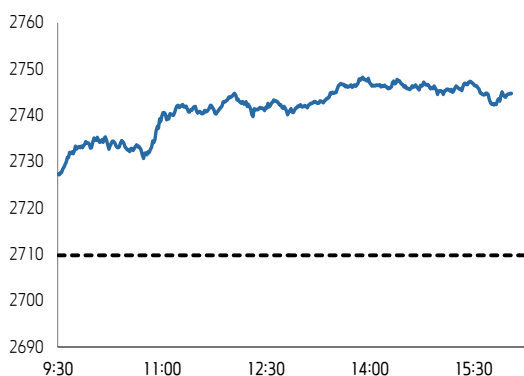
미 증시는 섣다운 해소 기대감과 브렉시트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기한 연장을 시사하자 상승폭 확대. 특히 산업재 및 기술주,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다우 +1.49%, 나스닥 +1.46%, S&P500 +1.29%, 러셀 2000 +1.27%)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여왔던 ①미·중 무역협상 ②섣다운 ③브렉시트 ④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먼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트럼프가 “중국과 합의에 근접하게 되면 데드라인을 연기할 수 있다” 라고 언급. 현재 차관급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중이며 지적재산권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트럼프의 발언은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더욱 높임. 한편, 트럼프는 “데드라인 연장이 내키지는 않지만, 일이 잘 풀리고 있다” 라며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긍정적.

섣다운과 관련된 내용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는 예산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섣다운을 보지는 않을 것” 이라고 언급. 이는 금요일 이전 의회의 추가 예산안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돼 관련 이슈는 해소되었다는 평가. 이런 가운데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 점도 주목. 이를 감안 메이총리는 26일까지 EU와 협상을 지속한 이후 27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와 일정을 공유. 메이 총리의 의회 연설 이후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며 브렉시트 완화 기대를 높임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 라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더불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라고 언급해 지난 5일 트럼프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인프라투자 등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190.47	+0.45	홍콩항셱		28,171.33	+0.10
KOSDAQ		730.58	-0.39	영국		7,133.14	+0.06
DOW		25,425.76	+1.49	독일		11,126.08	+1.01
NASDAQ		7,414.62	+1.46	프랑스		5,056.35	+0.84
S&P 500		2,744.73	+1.29	스페인		8,983.10	+0.52
상하이종합		2,671.89	+0.68	그리스		655.09	+0.08
일본		20,864.21	+2.61	이탈리아		19,805.28	+1.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산업재 강세

캐터필라(++2.90%), 디어(+2.01%) 등 기계업종과 보잉(+1.68%) 등 항공기 제조업체, 3M(+2.82%) 등 산업재 종목들은 미중 무역협상 완화에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론(+4.72%) 등 일부 반도체 업종 및 GM(+1.04%), 포드(+1.56%) 등 자동차 제조업체도 동반 상승 했다. 머크(+2.36%)는 세로운 약품에 대한 FDA 승인 소식으로 상승했다. NVIDIA(+3.22%)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양호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상승했다. 웰스파고(+2.94%)는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CFO의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JP모건(+1.70%), BOA(+0.99%)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아마존(+2.95%)는 와이파이 시스템 제조업체인 Eero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알파벳(+2.31%), 넷플릭스(+4.12%) 등도 상승 했다. 한편, 언더아머(+6.88%)는 양호한 실적 발표로 급등 했다. 그러나 맥도날드(-0.17%)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인 Shopify(+1.37%)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장중 하락하락 하기도 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3.28%)는 간 질환의 일종 인 NASH를 치료하기 위한 신약인 Selonsertib가 3상 임상시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8%	대형 가치주 ETF(IVE)	+1.28%
에너지섹터 ETF(OIH)	+1.55%	중형 가치주 ETF(IWS)	+0.97%
소매업체 ETF(XRT)	+1.68%	소형 가치주 ETF(IWN)	+0.88%
금융섹터 ETF(XLF)	+1.48%	대형 성장주 ETF(VUG)	+1.30%
기술섹터 ETF(XLK)	+1.32%	중형 성장주 ETF(IWP)	+1.4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6%	소형 성장주 ETF(IWO)	+1.64%
인터넷업체 ETF(FDN)	+1.73%	배당주 ETF(DVY)	+1.08%
리츠업체 ETF(XLRE)	-0.6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6%
주택건설업체 ETF(XHB)	+3.5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1%
바이오섹터 ETF(IBB)	+1.00%	미국 국채 ETF(IEF)	-0.13%
헬스케어 ETF(XLV)	+1.37%	하이일드 ETF(JNK)	+0.51%
곡물 ETF(DBA)	+0.48%	물가연동채 ETF(TIP)	+0.02%
반도체 ETF(SMH)	+2.23%	Long/short ETF(BTAL)	-0.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1.49	+1.18%	-1.99%	+3.07%
소재	338.35	+2.25%	+0.28%	+4.13%
산업재	627.18	+1.56%	+1.46%	+9.81%
경기소비재	859.06	+1.66%	-0.07%	+4.42%
필수소비재	558.65	+0.88%	+1.63%	+5.87%
헬스케어	1,052.99	+1.34%	+0.69%	+4.73%
금융	433.26	+1.56%	+0.04%	+5.76%
IT	1,207.13	+1.36%	+0.64%	+9.21%
커뮤니케이션	152.50	+1.14%	-1.66%	+4.12%
유틸리티	282.63	+0.17%	+1.76%	+6.97%
부동산	213.47	-0.70%	-0.35%	+7.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3% MSCI 신흥 지수 ETF 도 0.81%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683 계약)에 힘입어 1.20pt 상승한 285.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0.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우려 완화 등 주요 변수가 완화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우려하던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 연기를 시사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파월 의장이 미국은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은 대부분 상승하고, 달러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져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규모가 확대된 데 힘입어 상승한 점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12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711.6 만건)이나 예상치(690 만건) 보다 증가한 733.5 만 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했다. 특히 건설 부문에서 10 만명이 급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이직률은 2.6%를 기록했다. 정리해고는 3.2% 줄은 반면 자발적 퇴사는 1.0% 증가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쟁사로의 이동이 늘었다는 평가다.

1 월 미국의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104.4)이나 예상치(103.0)을 하회한 101.2 에 그쳤다. 이는 26 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장기 평균인 98 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특히 셋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는 발표를 감안 둔화 우려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위험자산 상승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월 산유량을 하루 약 980만 배럴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이는 합의했던 생산 키퍼보다 낮은 수치다.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메이총리는 26일까지 EU와 협상을 지속한 이후 27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와 일정을 공유했다. 유로화는 브렉시트 우려 완화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섀다운 우려 해소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가격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중국 상품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4.19% 급락했으며 철근은 0.79%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10	+1.32	-1.04	Dollar Index	96.709	-0.36	+0.67
브렌트유	62.42	+1.48	+0.71	EUR/USD	1.133	+0.48	-0.67
금	1,314.00	+0.16	-0.39	USD/JPY	110.47	+0.08	+0.46
은	15.690	0.00	-0.92	GBP/USD	1.2896	+0.32	-0.38
알루미늄	1,861.00	-1.01	-3.17	USD/CHF	1.0061	+0.22	+0.63
전기동	6,106.00	-0.72	-2.04	AUD/USD	0.7096	+0.48	-1.91
아연	2,608.00	-1.36	-4.85	USD/CAD	1.3242	-0.45	+0.88
옥수수	378.25	+1.48	-0.66	USD/BRL	3.7132	-1.13	+1.27
밀	521.75	+0.24	-1.42	USD/CNH	6.774	-0.39	+0.17
대두	917.50	+1.38	-0.30	USD/KRW	1123.90	-0.07	+1.01
커피	103.55	+0.24	-4.08	USD/KRW NDF1M	1120.35	-0.42	+0.3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79	+2.51	-1.96	스페인	1.236	-0.30	-1.70
한국	1.980	+4.00	-1.70	포르투갈	1.633	-1.80	-2.70
일본	-0.013	+1.60	-0.40	그리스	3.925	-7.10	+4.10
독일	0.132	+1.20	-3.80	이탈리아	2.842	-5.50	+5.00